

2023
고2 연매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4(1)(3) 근대 국어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자료를 바탕으로 근대 국어 시기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주로 학습 활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선지가 출제되었으나, 그 외에도 'ㅅ'계 합용 병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등 자료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선지에 활용하기도 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음운의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병, △, ·'의 소멸과 함께 '단모음화, 원순모음화'에 대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서울 가면 어디 머물러야 ㉢쥬호료
우리 順城門 官店에 가서 머므자 저괴셔 물 저제
가기 쏘 저기 갓가오니라
네 ㉣니르미 올타 나도 ㉤마음애 이리 ㉥싱각헛엇
더니 네 니르미 맞치 내 뜻과 갓다

- 『중간노걸대언해』 상권, 10장

[현대어 역]

우리 서울 가면 어디에 머물러야 좋을까?
우리 순성문 관점에 가서 머물자. 저기서 말 시장에 가기가 또 적이 가깝다.
네 말이 옳다. 나도 마음에 이리 생각하였는데 네 말이 마침 내 뜻과 같다.

(나)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흙이라 쏘 국문을 이 러케 귀절을 쉰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이 ㉣알어 보게 흙이 라 각국에서는 사롬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문저 비화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비오는 법인디 ㉤쥬션셔는 쥬션 국문은 아니 비오드리도 한문만 공부 헛는 싸둬에 국문을 잘아는 ㉥사롬이 드물미라

쥬션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쥬션국문이 한문 보다 ㉠얼마가 나흔거시 무어신고하니 첫치는 비호기가 쉬흔이 도흔 글이요 들치는 이글이 쥬션글 이니 쥬션 인민 들이 알아서 빅소를 한문되신 국문 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도보고 알아보기가 쉬흔터 이라 한문만 늘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흔 싸둬에 국 문으로 쓴건 쥬션 인민이 도로혀 잘 아러보지 못하 고 한문을 잘알아보니 그게 엇지 한심치 아니헛리오
- 『독립신문』 창간사

1. (가)를 읽고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 국어 시기의 '서울'은 단모음화의 결과 현대 국어의 '서울'이 되었다.
- ② 근대 국어 시기의 '쥬호료'의 '쥬-'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동-'이었으나 구개음화의 파괴로 '쥬-'이 되었다.
- ③ 근대 국어 시기의 '가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다.
- ④ 근대 국어 시기의 '마음'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마슴'이었으나 'ㅅ'의 소멸로 '마움'이 되었다.
- ⑤ 근대 국어 시기의 '싱각헛엇더니'에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 쓰였다.

2.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나)에는 공통적으로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다.
- ② (가)~(나)에는 공통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띄어쓰기를 하였다.
- ③ (가)~(나)에는 공통적으로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음운이 쓰였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표기법의 혼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에는 목적격 조사가 쓰였다.

3.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학생 1: '빙'이 [w]로 변화하여 중세 국어의 '셔블'이 (가)의 '셔울'이 되었어.

학생 2: (가)의 '쇼흐료'는 '졸을까?'로 중세 국어의 '동-'이 구개음화를 통해 '졸-'으로 변화되었어.

학생 3: (가)의 '므옴'은 중세 국어 때 '므슴'의 'ㅅ'이 'ㅇ'으로 변화된 것으로, 후에 '·'의 변화로 지금은 '마음'이 되었어.

학생 4: (나)에 '보기가'와 '비호기가'를 통해 중세 국어에 없었던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어.

학생 5: (나)에는 명사형 어미가 총 5군데에 쓰였어.

- ① 학생 1, 학생 2
- ② 학생 3, 학생 4
- ③ 학생 1, 학생 2, 학생 4
- ④ 학생 1, 학생 3, 학생 5
- ⑤ 학생 2, 학생 4, 학생 5

4.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대 국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 ② 주격 조사 '이'와 함께 '가'도 사용되었다.
- ③ 읽기의 효율성을 위해 띄어쓰기를 하였다.
- ④ 명사형 어미 '-옴'과 함께 '-기'도 사용되었다.
- ⑤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거듭적기가 섞여서 나타났다.

5.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다음에 주격 조사로는 '가'가 표기될 수 있다.
- ② ㉡의 중세 국어 시기의 표기가 '셔블'이라면 '빙'은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의 중세 국어 시기의 표기가 '쇼흐료'이면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 ④ ㉣은 소리를 중심으로, ㉡은 형태소 중심으로 표기되었다.
- ⑤ ㉣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았/었-'이 쓰였다.

6.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국문 표기의 취지와 장점을 알리고 있다.
- ② 이어적기가 모두 사라지고 끊어적기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 ③ 중세 국어 시기의 명사형 어미 '-옴/-움'이 모두 '-기'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 ④ 붙여쓰기를 사용하여 독자들이 어휘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 ⑤ 중세 국어 시기에 사용된 주격 조사 '이'가 모두 근대 국어 특징의 하나인 주격 조사 '가'로 통합되어 표기되었다.

7. (가)를 읽고 학생이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	→	근대 국어	→	현대 국어
셔블	→	셔울	→	서울
동-	→	졸-	→	졸-
므슴	→	므옴	→	마음
싱각하더 너	→	싱각하엿 더너	→	생각하엿 더너

- ① '셔블'이 '서울'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병'이 양성 모음 앞에서 'ㅍ'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동-'이 '종-'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ㅣ, ㅑ, ㅓ, ㅕ, ㅗ, ㅛ' 앞의 'ㄷ'이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 ③ 'ㅁ슴'이 'ㅁ슴'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ㅅ'이 아무 흔적 없이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ㅁ슴'이 'ㅁ슴'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ㅇ'가 첫째 음절에서는 'ㅍ'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ㅁ'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싱각ㅎ더니'가 '싱각하엿더니'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이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나)에 나타난 근대 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와 ㉕를 통해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㉖와 ㉗를 통해 명사형 어미 '-음'뿐만 아니라 '-기'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㉘를 통해 한 단어 내에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공존하는 현상이 보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㉙를 통해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단어들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㉚와 ㉛를 통해 주격 조사가 모음 아래에서는 '이', 자음 아래에서는 '가'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9.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근대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었다.
- ②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다.
- ③ 띄어쓰기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 ④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용되었다.
- ⑤ 이중모음 'ㅑ, ㅓ'가 모두 단모음화되었다.

10. (나)는 19세기 말에 발표된 글이다. (나)에 나타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기', '알어보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쓰인 예에 해당한다.
- ② '보기가', '비호기가'는 주격 조사 '가'가 쓰인 예에 해당한다.
- ③ '흙이라', '흙이라'는 명사형 어미 '-음/-음/ㅁ'이 쓰인 예에 해당한다.
- ④ 띄어쓰기를 해서 단어를 구분하거나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더 쉽다.
- ⑤ '흙이라' 등과 같이 끊어적기가 더러 나타나서 중세 국어와 같은 표기법을 보인다.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반적으로 근대 국어는 시기적인 측면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이어 주는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어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대체로 고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까지 공통되는 것이지만 현대 국어의 특징이라 할 만한 것 가운데에는 근대 국어 시기의 변화에서 비롯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다.

(나)

중세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자음 '병, ㅅ'은 소멸되었다. 'ㅇ'의 변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자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ㅇ' 자체는 양성 모음으로서 모음 조화에서 음성 모음 'ㅁ'와 대립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첫째 음절에서는 양성 모음,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음성 모음으로 변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음 조화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모음 조화를 잘 지키던 'ㅁ슴'이란 단어가 'ㅇ' 소멸 과정을 겪은 후에 'ㅁ슴'이란 형태로 변하여 한 단어 내에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공존하는, 즉 모음 조화를 지키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2023
고2 연매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4(1)(3) 근대 국어 서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자료나 예시에 드러나는 근대 국어 시기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근대 국어에서 새롭게 등장한 주격 조사 '-가', 명사형 어미 '-기'를 확인할 수 있는 예시를 미리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구개음화와 관련해 단어의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 그 환경 등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꽃 도쿄 여름 하느니'(용비어천가, 1445년)에서 '도쿄'의 기본형(어간+어미 '-다')을 쓰고, 이 기본형의 근대 국어 시기 변화된 형태와 그 원인(음운 현상)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3】 다음은 19세기 말에 발간된 「독립신문」 창간사의 일부이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쏘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쎌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 각국에 셔는 사롬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문져 비화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비오는 법인디 조선셔는 조선 국문은 아니 비오드리도 한문만 공부 하는 싸둬에 국문을 잘아는 사롬이 드물미라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 보다 얼마가 나흔거시 무어신고하니 첫지는비호기가 쉬흔이 묘흔 글이요 들지는 이글이 조선글이니 조선

인민 들이 알아셔 빅소를 한문되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도보고 알아보기가 쉬힐터이라 한문만 늘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흔 싸둬에 국문으로 쓴건 조선 인민이 도로혀 잘 아러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알아보니 그게 엇지 한심치 아니헝리요

2. 아래 ①, ②에 나타나는 근대 국어 문법의 특징을 정리하시오.

<조건>

띄어쓰기를 제외한 10자 내외의 완전한 문장으로 쓸 것.

① 빅소를:

② 보기가, 비호기가, 알아보기가:

3. 근대 국어 시기에는 주격 조사 '가'가 등장한다. 윗 글에서 주격 조사 '가'가 쓰인 사례를 4개만 찾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 서술할 것.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정답 ②

근대 국어 시기의 '쇼료'의 '종-'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동-'이었다. 하지만 근대 국어 시기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구개음화로 인해 'ㄷ'이 'ㅈ'으로 교체되며 '종-'이 되었다.

① 근대 국어 시기의 '서울'은 단모음화의 적용으로 'ㄱ'이 'ㄷ'로 교체된 후, 그 형태가 고정되어 현대 국어의 '서울'이 되었다.

③ 근대 국어 시기의 '가기'는 용언 어간 '가-'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것으로, 근대 국어 시기 새로운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④ 근대 국어 시기의 '마음'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마슴'이었으나 'ㅅ'이 별도의 음가를 남기지 않고 소멸하여 '마음'이 되었다.

⑤ 근대 국어 시기의 '싱각했더니'에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 쓰였으며, 이는 별도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존재하지 않았던 중세 국어와의 차이를 보여 준다.

2. 정답 ④

(가)와 (나) 모두 이어적기, 끊어적기가 혼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에는 표기법의 원칙이 없어 혼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가)의 '가기'와 (나)의 '보기, 비호기' 등에서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띄어쓰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붙여쓰기를 할 때와 비교하였을 때 글을 더욱 쉽게 읽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③ (가)와 (나)에서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 '스계 합용 병서'를 확인할 수 있다.

⑤ (나)의 '국문을, 말을' 등을 통해 목적격 조사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정답 ③

학생 1: (가)에서 '서울'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셔'였

는 '이'였다. 하지만 '병'이 [w]로 교체되며, 모음 조화에 따라 'ㅈ'로 바뀌었다.

학생 2: (가)의 '쇼료'의 '종-'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동-'이었다. 하지만 근대 국어 시기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구개음화로 인해 'ㄷ'이 'ㅈ'으로 교체되며 '종-'이 되었다.

학생 4: (나)에 '보기가'와 '비호기가'는 중세 국어 시기였다면 주격 조사 '이'가 ∅로 실현되는 환경이다. 하지만 근대 국어에 들어서며 새로운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나)와 같이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 3: (가)의 '마슴'을 통해 중세 국어 때 '마슴'의 'ㅅ'이 소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ㅅ'이 'ㅇ'이 되었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이후, 첫 번째 음절의 '·'은 'ㅈ'로, 두 번째 음절 이하의 '·'는 'ㅡ'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 지금의 '마음'이 되었다.

학생 5: (나)의 '흙이라, 흙이라, 드물미라'를 통해 명사형 어미 '-음/움'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기가, 비호기가, 알아보기가'를 통해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총 여섯 군데에 사용되었다.

4. 정답 ⑤

'쓰는거슨' 등을 통해 이어적기를, '우리신문이' 등을 통해 끊어적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거듭적기가 나타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① (나)의 '알어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의 '우리신문이' 등을 통해 중세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가'와 '비호기가'는 중세 국어 시기였다면 주격 조사 '이'가 ∅로 실현되는 환경이다. 따라서, 근대 국어에 들어서며 새로운 주격 조사 '가'가 '이'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췌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흙이라'를 통해 띄어쓰기를 하여 읽기를 더욱 쉽게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흙이라, 흙이라, 드물미라'를 통해 명사형 어미 '-음/움'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기가, 비호기가, 알아보기가'를 통해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정답** ⑤

㉠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았/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① ㉠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며, 근대 국어에서 부터 주격 조사 '가'가 '이'와 함께 쓰이기 시작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의 중세 국어 시기의 표기가 '셔를'인 것과 달리, (가)에서는 '셔울'과 같이 쓰이고 있으므로 '빙'이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의 중세 국어 시기의 표기가 '쇼료'인 것과 달리 (가)에서는 '쇼료'와 같이 쓰이고 있으므로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④ ㉠은 이어적기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소리를 중심으로 한 표기에 해당한다. 반면, ㉠은 끊어적기로, 형태소를 중심으로 한 표기에 해당한다.

6. **정답** ①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 끊어적기를 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쓰는거슨' 등을 통해 이어적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과도기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흠이라, 흠이라, 드물미라'를 통해 명사형 어미 '-음/음'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기가, 비호기가, 알아보기가'를 통해 명사형 어미 '-기'가 함께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의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썰어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를 통해 띄어쓰기를 하여 읽기를 더욱 쉽게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우리신문이' 등을 통해 중세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가'와 '비호기가'는 중세 국어 시기였다면 주격 조사 '이'가 ∅로 실현되는 환경이다. 따라서, 근대 국어에 들어서며 새로운 주격 조사 '가'가 '이'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정답** ①

'셔울'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셔를'이었다. 하지만 '빙'이 [w]로 교체되며, '빙'이 선행하는 음성 모음과의 모음 조화에 따라 'ㅍ'로 바뀌었다.

② '쇼료'의 '쇼-'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동-'이었다. 하지만 근대 국어 시기에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구개음화로 인해 'ㄷ'이 'ㅌ'으로 교체되며 '쇼-'이 되었다.

③, ④ '모음'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모숨'이었다. 하지만 'ㅅ'이 아무 흔적 없이 소멸되며 '모음'이 되었으며, 'ㅅ'가 첫째 음절에서는 'ㅆ'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ㅍ'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현대 국어의 '마음'이 되었다.

⑤ 근대 국어 시기의 '싱각헛엇더니'에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 쓰였으며, 이는 별도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존재하지 않았던 중세 국어와의 차이를 보여 준다.

8. **정답** ⑤

㉠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기 때문에 주격 조사 '이'가 쓰인 반면, ㉡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으로 주격 조사 '가'가 쓰였다. 따라서 근대 국어에서 모음 아래에서는 '가', 자음 아래에서는 '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① ㉠은 이어적기, ㉡는 끊어적기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에는 명사형 어미 '-음'이 사용되었으며, ㉠은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는 명사형 어미 '-음'뿐만 아니라 '-기'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는 모음 조화에 따라 표기하면 '알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성 모음인 '알-' 뒤에 음성 모음 '-어'가 결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음 조화에 혼란이와 한 단어 내에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공존하는 현상이 보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의 'ㄷ'는 현대 국어에서 모두 'ㄷ'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을 통해 당시에는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정답** ⑤

근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중 모음 'ㅑ, ㅓ'가 단모음화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

다. 하지만 모든 'ㅈ, ㅉ'가 단모음 'ㅈ, ㅉ'가 된 것은 아니다.

- ① '보기가'와 '비호기가'는 중세 국어 시기였다면 주격 조사 '이'가 ∅로 실현되는 환경이다. 하지만 근대 국어에 들어서며 새로운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의 '흙이라, 흙이라, 드물미라'를 통해 명사형 어미 '-옴/움'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기가, 비호기가, 알아보기가'를 통해 명사형 어미 '-기'가 함께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의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췌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흙이라'를 통해 띄어쓰기를 하여 읽기를 더욱 쉽게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끊어적기를 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쓰는거슨' 등을 통해 이어적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과도기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10. **정답** ⑤

(나)에서 '흙이라' 등과 같이 끊어적기가 더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어적기를 했던 중세 국어와의 표기상 차이를 보여 준다.

- ① (나)의 '흙이라, 흙이라, 드물미라'를 통해 명사형 어미 '-옴/움'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기가, 비호기가, 알아보기가'를 통해 명사형 어미 '-기'가 함께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보기가'와 '비호기가'는 중세 국어 시기였다면 주격 조사 '이'가 ∅로 실현되는 환경이다. 하지만 근대 국어에 들어서며 새로운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의 '흙이라, 흙이라, 드물미라'를 통해 명사형 어미 '-옴/움'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의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췌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흙이라'를 통해 띄어쓰기를 하여 읽기를 더욱 쉽게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1. **정답** ④

<보기>에서 끊어적기를 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쵸호료' 등을 통해 이어적기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과도기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셔울'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셔블'이었다. 하지만

만 '빙'이 [w]로 교체되며, 모음 조화에 따라 'ㅈ'로 바뀌었다.

- ② 근대 국어 시기의 '쵸호료'의 '쵸-'은 중세 국어 시기에는 '똥-'이었다. 하지만 근대 국어 시기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구개음화로 인해 'ㄷ'이 'ㅈ'으로 교체되며 '쵸-'이 되었다.
- ③ 근대 국어 시기의 '가기'는 용언 어간 '가-'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것으로, 근대 국어 시기 새로운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⑤ 'ㅁ옴'을 통해 중세 국어 때 'ㅁ숨'의 'ㅅ'이 소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첫 번째 음절의 'ㅁ'은 'ㅂ'로, 두 번째 음절 이하의 'ㅁ'은 'ㄴ'로 바뀌는 과정을 거쳐 지금의 '마음'이 되었다.

12. **정답** ①

'붉은'과 '물'은 현대 국어의 '붉은'과 '물'에 대응한다. 이를 통해 양순음의 영향으로 원순모음화가 발생한 모습은 현대 국어에서 드러나는 양상이며, 근대 국어에서는 '붉은'과 '물'처럼 원순모음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하늘을'과 '나를'은 '올, 룰'이 결합해야 하는 체언이다. 하지만 근대 국어에서 모음 조화가 약화되며 '을, 룰'이 결합한 것을 알 수 있다.
- ③ '눈을'은 단어의 형태를 밝혀 적었으므로 분철, '드러'는 소리나는 대로 적었으므로 연철에 해당한다. 이렇게 근대 국어에서는 연철과 분철이 섞여 사용되는 과도기적 양상이 드러난다.
- ④ '꺾흔'은 '같은'의 종성 'ㅌ'을 'ㄷ+ㅎ'으로 나누는 재음소화가 나타났으며, 종성의 'ㄷ'이 'ㅅ'으로 표기되었다.
- ⑤ '붉기'와 '통냥ㅎ기'를 통해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옴/움'만이 사용되었던 중세 국어와의 차이를 보여 준다.

13. **정답** ⑤

'숯불빋꺾더라'를 보면 받침으로 8개 자음을 적던 중세 국어와는 달리 'ㄷ'을 제외한 7개의 자음만을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 ① '홍식이거록ㅎ야'는 단어의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적기의 사례이다. 이는 이어적기를 했던 중세와의 차이를 보여 준다. 다만 거듭적기는 나타나지 않

‘국어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대체로 고대 국어부터 현대 국어까지 공통되는 것이지만 현대 국어의 특징이라 할 만한 것 가운데에는 근대 국어 시기의 변화에서 비롯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다.’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

- ① 중세 국어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구개음화가 근대 국어에서 일어나 현대 국어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의 변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자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중세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자음 ‘병, △’이 소멸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체언의 말음이 모음 ‘ㅣ’인 경우와 같이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 나타나다가 서서히 그 쓰임을 넓혀가서 모음 아래에서는 ‘가’, 자음 아래에서는 ‘이’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 **정답** ③

중세 국어 시기는 훈민정음의 창제를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 ① 고대 국어 시기는 원시 국어 시대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로, 국어의 중심이 동남 방언에 있었다.
- ② 중세 국어 시기는 고려 건국부터 16-17세기 교체기 이전까지에 해당한다.
- ④ 근대 국어는 시기적인 측면에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음운, 어휘, 문법 등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이어 주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 ⑤ 고대 국어에서 중세 국어 시기로 오면서 고려의 건국으로 인해 국어의 중심이 동남 방언에서 중부 방언으로 옮겨졌다.

서술형 기출 문제

- 1. **정답** 동+-다>좡+-다, 구개음화
- 2. **정답** ①: 조사의 사용이 혼란했다, ②: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다./주격 조사로 ‘가’가 사용되었다.

- 3. **정답** 보기가, 얼마가, 빅호기가, 알아보기가
- 4. **정답** ‘물밑울’을 거듭적기에 따라 적으면 ‘물밑톨’이 되는데, 이때 종성의 ‘ㅌ’은 8종성법에 따라 ‘ㅍ’으로 교체되어 ‘물밑퐁’이 되었으며, 초성의 ‘ㅌ’은 당시 활발했던 구개음화의 영향에 따라 ‘물밑츨’과 같이 교체되었다.
- 5. **정답** 근대 국어 시기에 ‘ㅈ, ㅊ, ㅉ’의 조음 위치가 연구개로 바뀌었는데, 이는 모음 ‘ㅣ’의 조음 위치와 유사하여 구개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다만 ‘디디다’의 경우에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구개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당시에는 ‘ㄷ’과 모음 ‘ㅣ’이 결합하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 6. **정답** 누구나 보기가 쉽고 말을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 7. **정답**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 8. **정답** 아모라도, 흠이라

서지정보

저자 김혜린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5323-5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30720

가격 1500원

값 1500 원



ISBN 979-11-377-5323-5 (PDF)